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의 현주소와 향후  
전개방향

김정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I. 서론

우리나라 수산업은 이미 1980년대 후반을 분수령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즉 1986년부터 시작된 UR협상과 국내 수산물시장의 불가피한 개방화 추세, 1994년 'UN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EEZ체제의 정착, WTO체제의 출범과 GATT 체제 하에서 약속한 수산물 전 품목의 수량제한 철폐 및 수입 자유화 실시, 한·일, 한·중 어업협상에 따른 어장축소와 생산기반의 약화 등 수산업은 변화와 충격의 연속이었다.

특히, 과거 1960~70년대 고도 경제개발시대에 있어서 우리 수산업은 무역수지의 흑자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나 지난 2001년도 처음으로 3억 7천만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무역적자는 누적적으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WTO/DDA 협상은 정해진 개혁의 원칙에 따라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의 폭을 결정짓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더 시장지향적이면서 '예외 없는 관세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UR협상 결과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을 선호하고,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가인 일본을 인근에 두고 있어 수출지향적인 수산물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른 수산물 수출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의 수산물 교역실태 분석을 통하여 무역구조의 변화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향후 한·일, 한·중간의 수산물 무역에 미칠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산물 교역방향을 토론의 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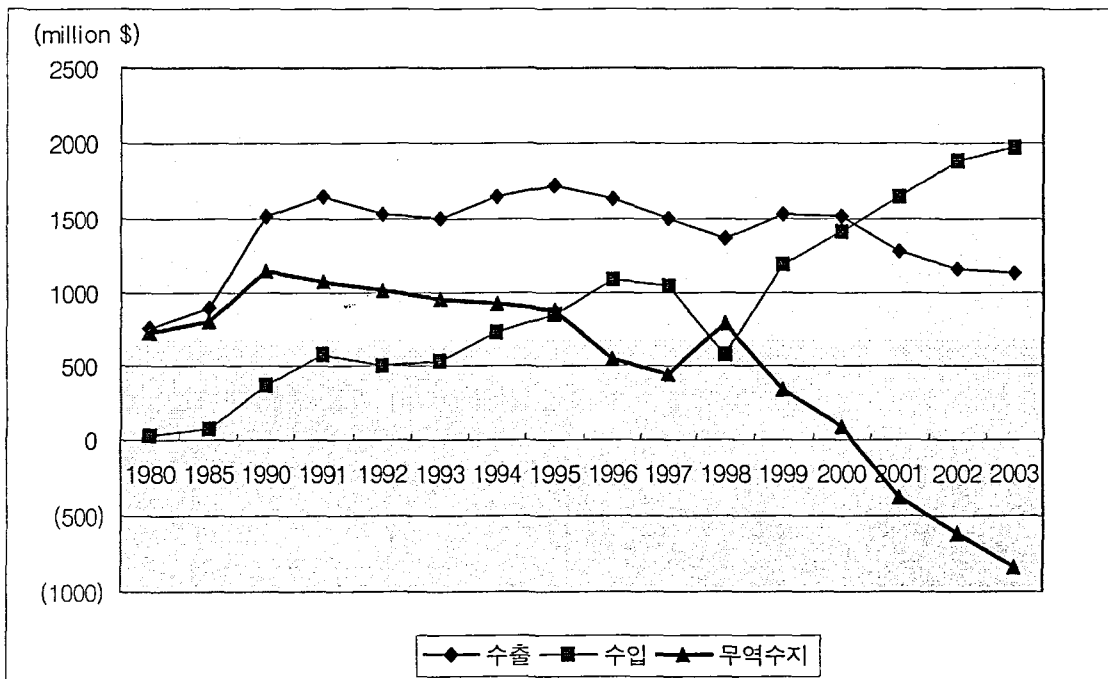
## II.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실태 분석

### 1. 수산물 무역수지의 변화

#### (1) 종합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은 지난 2001년 최초로 3억 8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근 3년 동안 그 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해양법협약 발효 및 200해리 경제수역체제의 정착에서 비롯된 원양어업의 위축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근해어장의 축소, 그리고 연안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수출공급기반이 약화된 반면, 소비는 소득 증가에 힘입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1>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변동 추이



< 표 1 >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과 무역수지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산물 수출		수산물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980	760	4.3	37	0.2	723
1985	891	2.9	83	0.3	808
1995	1,721	1.4	843	0.6	878
2000	1,504	0.8	1,411	0.9	93
2003	1,129	0.8	1,962	1.2	△ 832

주 : 1)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물 자료는 FAO 자료와 상이한 수치를 보일 수 있음.

2) \*는 세계 수산물 총수출(입)금액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금액 비율임.

자료 : 해양수산부, 「2000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1.

[http://www.momaf.go.kr/data/statistics/statistics.asp\(2002. 8. 18\)](http://www.momaf.go.kr/data/statistics/statistics.asp(2002. 8. 18))

이와 같은 수산물 무역의 변화추이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무역수지의 역전은 단순한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국내 수출의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국내 수출의 공급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동안 무역수지 흑자의 시현은 국내 수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품목 제한, 고관세 등 강력한 국경보호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수산물 수입개방예시계획에 따라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진 1998년 이후에 수입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수산물 무역의 흐름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산물 관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WTO/DDA 협상이나, APEC의 관세협상 등의 결과에 따라 큰 폭으로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 반면 수산물 수출 공급기반인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생산여건이 상당 기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2) 국가별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교역국가와의 수산물 무역수지 변화를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2 > 한국의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99			2001			2003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총계	1,521	1,179	342	1,273	1,648	△375	1,129	1,961	△832
일본	1,155	107	1,048	925	139	786	740	149	591
중국	59	413	△354	56	634	△578	71	714	△643
미국	76	130	△54	82	159	△77	80	153	△73
스페인	36	10	26	42	9	33	46	6	40
태국	29	44	△15	33	83	△50	38	96	△58
대만	11	21	△10	17	46	△29	17	43	△26
캐나다	11	19	△8	11	25	△14	8	51	△43
필리핀	18	11	7	6	18	△12	2	51	△49
홍콩	12	13	△	10	4	6	14	4	10
인도네시아	9	23	△14	5	25	△20	6	27	△21
기타	105	388	△283	86	506	△420	107	667	△560

자료 : 해양수산부, 「2003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0% 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상당한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 흑자로 다른 나라들과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대일 수산물 무역수지는 큰 폭으로 줄어들어 드는 반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폭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 외에도 태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의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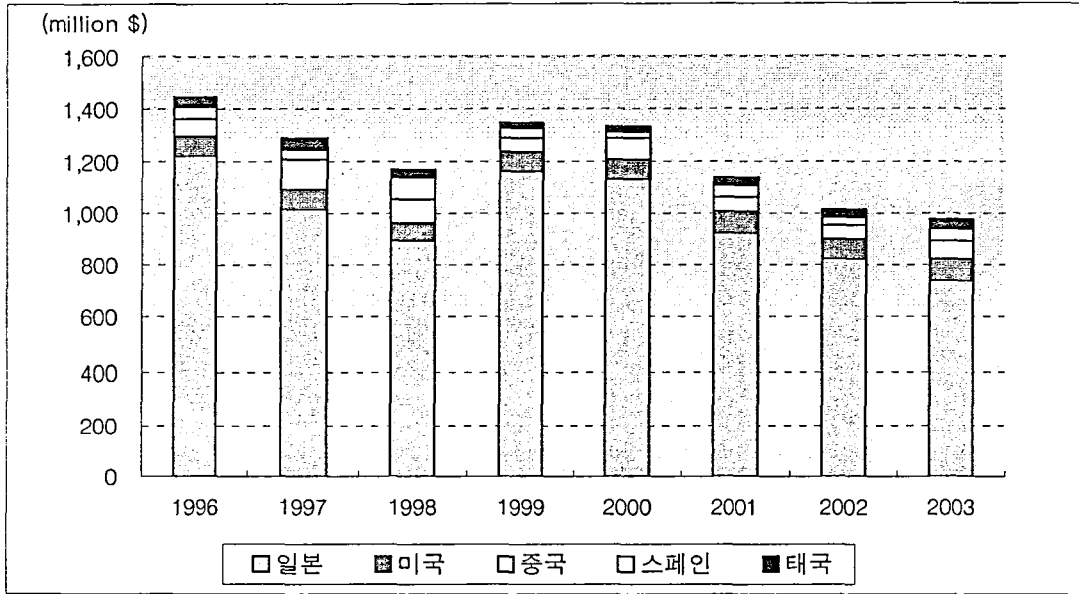
## 2. 수산물 수출입 실적

### (1) 국가별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의 국별 수출의존도를 보면, 일본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국 7.1%, 미국 6.2%, 스페인 4.1%, 대만 3.4%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5대 수산물 수출대상국별의 1996년 이후 수출변동추이를 보면, 중국, 스페인 등 일부국가에서는 미미하나마 증가추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순증가량은 일본의 동 기간 감소량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체 수출금액은 1996년 이후 연평균 4.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림 2 >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수출변동 추이



< 표 3 >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수출변동 추이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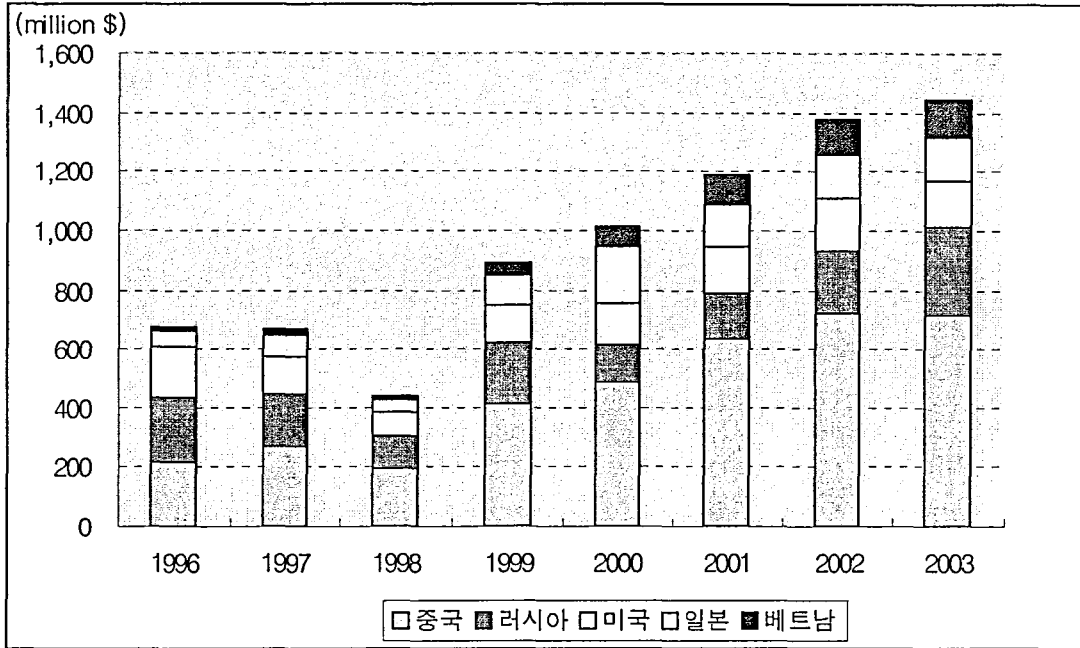
구분	1996	2000	2003		연평균 증가율(%)
			금액	구성비	
전체	1,635	1,504	1,129	100.0	△4.5
일본	1,217	1,125	740	65.5	△6.0
미국	82	79	80	7.1	△0.3
중국	68	84	70	6.2	0.4
스페인	44	25	46	4.1	0.6
태국	38	22	38	3.4	0.0

자료 : 해양수산부, 「2003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한편, 수산물 수입은 2003년 현재 중국이 전체수입의 36.4%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러시아가 15.2%, 미국 7.8%, 일본 7.6%, 베트남 6.6%로 이들 5개국이 전체 수입의 약 3/4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1996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5대 수산물 수입대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증가율은 가파르게 증가해 오고 있다. 러시아가 6.9%로 전체 수입증가율에 약간 못미치나 나머지 국가는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3 >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수입변동 추이



< 표 4 > 연도별 주요 교역상대국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96	2000	2003		연평균 증가율(%)
			금액	구성비	
전체	1,080	1,411	1,961	100.0	7.7
중국	217	487	714	36.4	16.1
러시아	213	125	299	15.2	6.9
미국	175	145	153	7.8	△12.6
일본	58	185	149	7.6	12.5
베트남	13	72	130	6.6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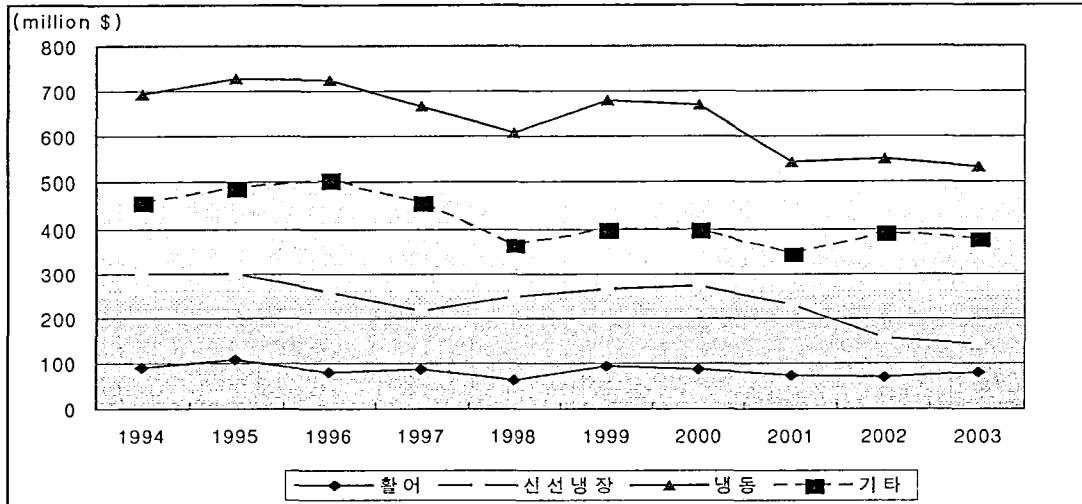
## (2) 제품형태별

수산물 무역통계상의 제품형태별 통계체계가 개정된 1994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의 제품형태별 수출실적을 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품목의 절대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구성에 있어서는 최근까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냉동품은 거의 40%를



약간 상회하는 비율로 지속돼 오고 있고, 신선·냉장품 역시 15~1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두 제품형태의 수출규모는 총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 그림 4 > 한국의 수산물 제품형태별 수출 변동 추이



< 표 5 > 수산물 제품형태별 연도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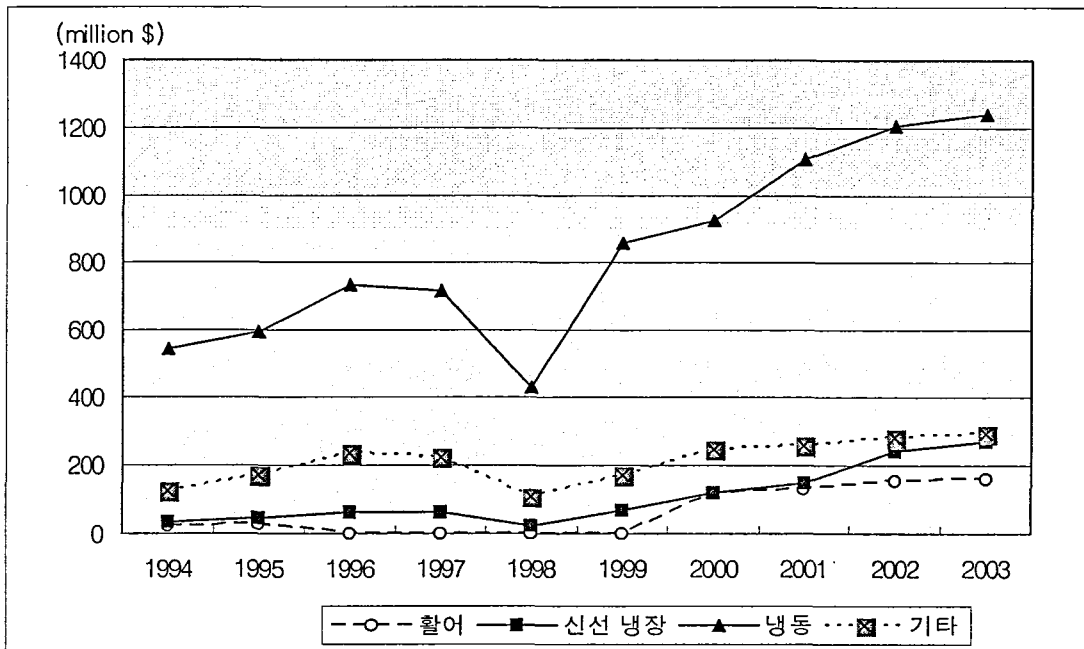
연도	계	활어	신선·냉장	냉동	기타
1994(A)	1,647 (100)	90 (5.5)	300 (18.2)	692 (42.0)	565 (34.3)
1997	1,493 (100)	85 (5.7)	217 (14.5)	666 (44.6)	525 (35.2)
2000	1,505 (100)	85 (5.6)	270 (17.9)	670 (44.5)	480(31.9)
2003(B)	1,129 (100)	78 (5.7)	142 (18.1)	532 (42.7)	377(33.4)
B/A	069	0.87	0.47	0.77	0.67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호

( )내는 구성비임.

한편,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물 수입의 경우는 절대금액의 증가와 더불어 상품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수입실적을 보이고 있는 냉동품은 1994년 약 5억 4천만달러에서 2003년에는 12억 4천만달러로 2.3배 증가하였으며, 신선·냉장품은 동 기간에 7.5배 증가한 약 2억 7천만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수입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활어의 경우에는 동기간 6.6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 그림 5 > 한국의 수산물 제품형태별 수입 변동 추이



< 표 6 > 수산물 제품형태별 연도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계	활어	신선·냉장	냉동	기타
1994(A)	726 (100)	24 (3.3)	36 (5.0)	542(74.7)	88 (12.1)
1997	1,045 (100)	43 (4.1)	65 (6.2)	717(68.6)	178 (17.0)
2000	1,411 (100)	119 (8.4)	118 (8.4)	928 (65.8)	173 (12.3)
2003(B)	1,961 (100)	159 (8.0)	271 (9.1)	1,239 (67.4)	292 (10.6)
B/A	2.70	6.6	7.5	2.3	3.3

주 :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호.

이상의 제품형태별 수출입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수산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제품형태별 구성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산물 무역환경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경쟁력이 퇴보하거나 공급기반이 취약해진 제품은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육성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상품 구성은 수출, 수입 모두 냉동품과 신선·냉장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내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주요 품목별

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 표 7 >과 같다. 먼저 수출 수산상품의 국가별 비중에 있어서는 눈다랑어(냉동)를 비롯한 황다랑어(냉동), 캐비아 대용품, 활납치, 기타어류피레트(냉동), 톳(건조) 등은 거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오징어(냉동)은 중국, 스페인, 뉴질랜드에, 생선묵은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한편, 10대 수입품목의 국가별 비중은 품목별로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최대 수입수산물인 명태(냉동)은 러시아에서 93.4%를 수입하고 있으며, 조기(냉동)의 99.8%, 낙지(냉동)의 84.1%, 갈치(냉동)의 68.2%, 꽃게(냉동)의 66.7%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 표 7 > 우리나라 수출입 10대 수산품목의 국가별 비중( 2003년도 기준)

단위 : 백만 \$

수 출				순위	수 입			
품목별	수출 실적	품목별 비중(%)	주요국가별 비중		품목별	수입 실적	품목별 비중(%)	주요국가별 비중
	1,129	100		전체		1,961	100	
눈다랑어(냉동)	105	9.3	일본(99.4)	1	명태(냉동)	180	9.2	러시아(93.7)
황다랑어(냉동)	68	6.0	일본(89.6)	2	조기(냉동)	127	6.5	중국(99.4)
오징어(냉동)	60	5.3	스페인(27.3), 중국(23.7), 뉴질랜드(13.8)	3	기타연육(냉동)	71	3.6	베트남(32.1), 태국(20.9), 중국(17.3)
캐비아 대용품	49	4.3	일본	4	명란(냉동, 피레트, 어육제외)	68	3.5	러시아(75.5), 미국(16.7)
납치(활어)	47	4.2	일본(99.1)	5	갈치(냉동)	66	3.4	중국(68.2), 인도네시아(9.5)
기타어류(냉동)	40	3.5	일본(23.4), 스페인(21.2), 뉴질랜드(18.3)	6	꽃게(냉동)	56	2.9	중국(66.7)
기타어류피레트(냉동)	38	3.4	일본(95.4)	7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56	2.9	태국(55.9), 필리핀(10.5)
톳(건조)	35	3.1	일본(98.7)	8	아귀(냉동)	54	2.8	미국(52.4), 중국(29.0)
기타게살(통조림, 훈제외)	34	3.0	일본(83.1), 미국(12.1)	9	낙지(냉동)	48	2.4	중국(84.1)
생선묵(게맛)	28	2.5	스페인(29.5), 이탈리아(23.4), 벨기에(10.0)	10	명태연육(냉동)	48	2.4	미국(96.5)

자료 : 해양수산부, 「2003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이상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실적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일본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품목별 수출에 있어서도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경우 일본시장의 수입여건 변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자율적인 생산조정이 어렵다.

둘째,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일본산 수산물은 가격경쟁에서의 비교열위로 인하여 상당히 제한적인 물량이 수입되었으나,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호도가 큰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면에 있어서 비교우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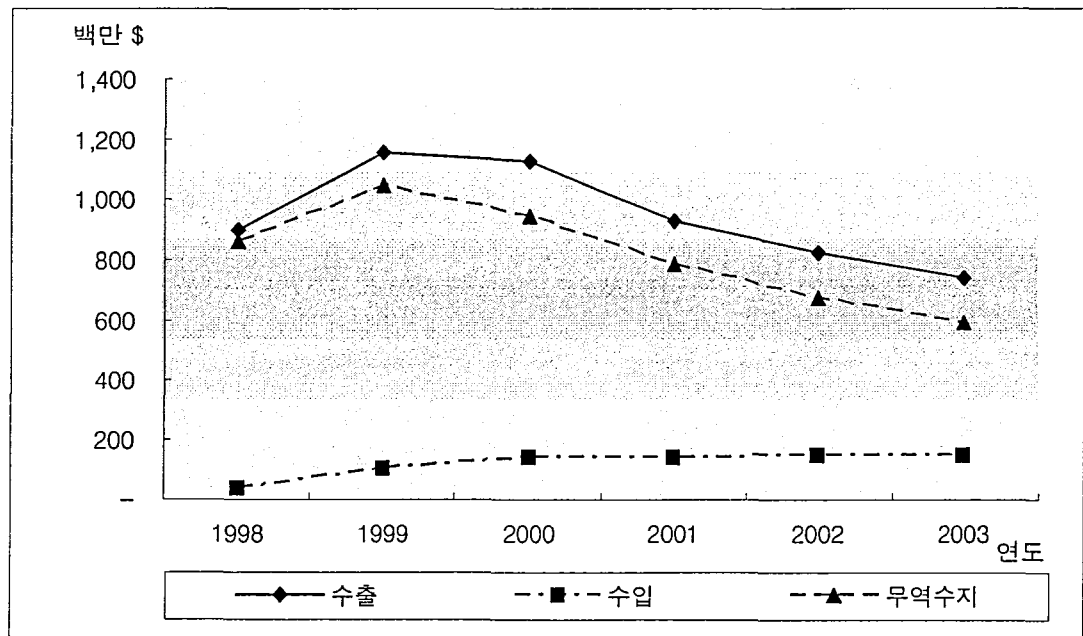
### Ⅲ. 한·일간 수산물 교역 동향

#### 1. 수산물 무역수지

1990년대 이전까지 한일간의 수산물 무역은 한국의 수출, 일본의 수입이라는 일방통행적 교역 양상이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흑자폭은 1999년 10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5억 9천만 달러 수준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은 같은 기간 중에 12억 8천만 달러에서 7억 4천만 달러로 줄어든 반면, 일본에서의 수입은 4천 6백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은 연평균 3.0%씩 감소한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10.9%씩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는 동기간 4.4%씩 감소해 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중국, 미국, 러시아와 동남아 국가의 대일본 수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연근해의 수산자원 감소, 연료비와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수산업체들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된 데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으로 우리 대중어종의 어획량이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다.

< 그림 6 >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무역수지 변화



< 표 8 > 연도별 한일 수산물 무역수지 규모

단위 : 백만불

구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 (B-A)
1990	1,141	35	1,106
1995	1,281	46	1,235
2000	1,125	185	940
2001	925	139	789
2002	823	146	677
2003	740	149	591
연평균 증감율(%)	△ 3.0	10.9	△ 4.4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 수산물 수출입시장의 구조변화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2/3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일본의 수산물 수입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전체 수산물 수출이 1995년의 17.2억 달러에서 연평균 4.6%씩 감소하여 2003년에는 11.3억 달러로 34.3% 줄어들었는데, 같은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은 12.8억 달러에서 연평균 5.9%씩 감소하여 7.4억 달러로 42.2% 줄어들었다. 반면, 우리나라 수입시장에 대한 일본 수산물의 점유율은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2000년에 가장 높은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표 9 >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입 비중

단위 :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수출	일본 수출	비율	총수입	일본 수입	비율
1995	1,722	1,281	74.4	843	46	5.5
2000	1,504	1,125	74.8	1,411	185	13.1
2001	1,274	925	72.6	1,648	139	8.4
2002	1,160	823	70.9	1,884	146	7.7
2003	1,129	740	65.5	1,961	149	7.6
연평균 증가율(%)	△ 4.6	△ 5.9		9.8	13.9	

### 1) 품목별 수출시장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은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품목별로는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중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8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수산물 품목이 240개였으며 상위 10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235개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했으며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은 60%로 높아졌다. 상위 10개 품목의 1998년과 2003년 대일본 수출액이 각각 4.4억 달러와 4.3억 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일본 수산물 수출의 소수품목 집중이 특정 품목의 수출특화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수출상품의 다양화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1998년과 2003년의 주요 대일 수출 수산물의 수출실적을 비교해 보면 피조개, 바지락, 굴, 톳(건조) 등의 대일 수출은 줄어든 반면 캐비아 대용품, 기타어류 필렛, 기타 게살(통조림, 훈제 외) 및 넙치(활어)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주종품목이 1차 상품의 단순 수산물에서 수산 가공품이나 고가의 활어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보다 안정적인 수출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표 10 > 대일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액 변화

단 위 : 천 달러

품목명	1998	품목명	2003
눈다랑어(냉동)	119,941	눈다랑어(냉동)	104,198
피조개(산것/신선,냉장)	49,776	황다랑어(냉동)	60,823
황다랑어(냉동)	41,673	캐비아대용품	48,350
캐비아대용품	38,860	넙치(활어)	46,700
톳(건조)	37,430	기타어류 필렛(냉동)	36,322
붕장어 필렛(신선,냉장)	35,049	톳(건조)	34,949
굴(굴치패이외기타/산것,신선,냉장)	29,569	기타 게살(통조림,훈제 외)	28,666
기타다랑어(냉동)	28,602	붕장어 필렛(신선,냉장)	26,865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28,436	피조개(산것/신선,냉장)	24,467
바지락(산것/신선,냉장)	25,773	굴(냉동)	20,098
상위 10위 합계(천 달러)	435,109	상위 10위 합계	431,438
전체 합계(천 달러)	889,661	전체 합계	735,035
상위 10위 비중(%)	48.9	상위 10위 비중	58.7
전체 수출 품목수(개)	240	전체 수출 품목수	235

주 : HS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 품목별 수입시장

우리나라는 일본 수산물 총 수출액의 11.9%를 점유하는 3번째의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수산물의 종류도 1998년의 132개에서 211개로 대폭 늘어나 수출 수산물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상위 10개 품목 집중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중에 61.9%에서 64.5%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 참고).

특기할만한 것은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이 가장 많은 어종이 우리나라의 대중 어종인 명태라는 사실이다. 신선·냉장품과 냉동품 및 명란을 합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한 명태는 4억 7천만 달러에 달해 상위 10개 품목 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돔(활어)과 전복과 같은 고급어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획량이 급감한 대중선어의 대일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표 11 > 일본 수산물 수입액의 품목별 추이

단 위 : 천 달러

1998		2003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갈 치(신선,냉장)	5,608	명 태(신선, 냉장)	37,318
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행동물의 생산품(기타)	3,027	돔(활어)	12,915
갈 치(냉동)	2,744	갈 치(신선, 냉장)	8,575
명 란(냉동/필렛, 어육 제외)	2,646	기타 어류(냉동)	8,243
어류의 유지, 분획물(간유 제외)	2,644	전 복(산 것, 신선, 냉장)	5,438
기타어류(냉동)	2,306	기타 어류(신선, 냉장)	5,112
돔(활어)	2,114	명 태(냉동)	4,735
문 어(냉동)	1,928	명 란(냉동/필렛, 어육 제외)	4,494
농 어(활어)	1,074	떡장어(활어)	4,168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우(냉동)	792	기타 연체동물(신선, 냉장)	3,386
상위 10위 합계(천 달러)	22,139	상위 10위 합계	94,384
전체 합계(천 달러)	37,637	전체 합계	149,236
상위 10위 비중(%)	61.9	상위 10위 비중	64.5
전체 수출 품목수(개)	132	전체 수출 품목수	211

주 : HS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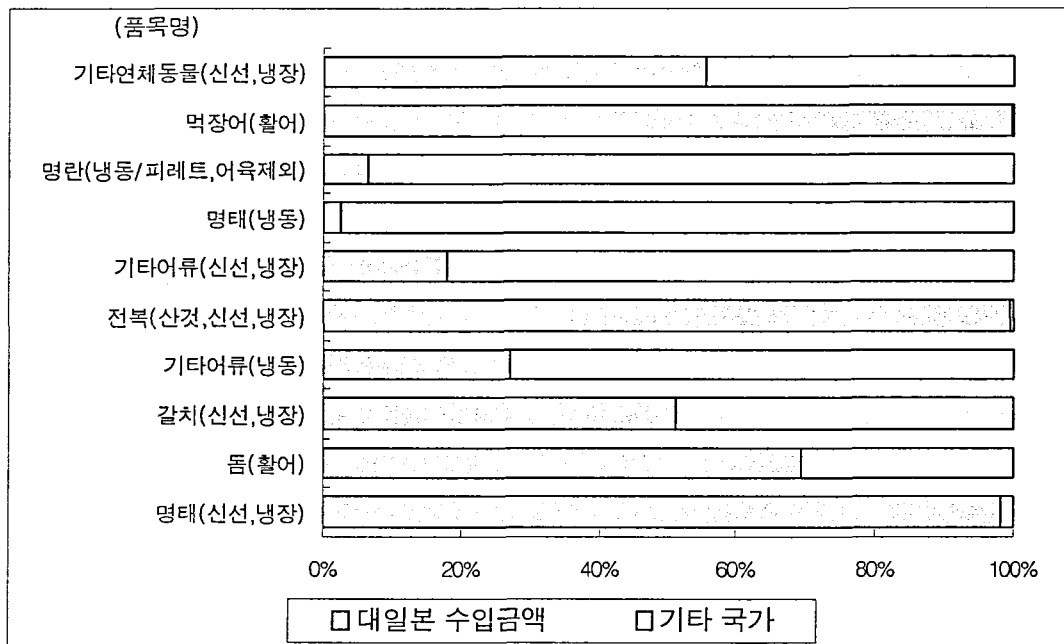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이처럼 대일 수산물 수입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전체 수입액 중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한 떡



장어(활어)가 수입산의 99.8%를 장악하고 있는 데 이어 전복(산 것, 신선, 냉장)은 99.5%, 명태(신선, 냉장)는 98.2%를 차지하여 사실상 수입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돔(활어)과 갈치(신선, 냉장) 및 기타 연체동물(신선, 냉장)도 점유율도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명태나 갈치는 대중어종인 데다 돔(활어)도 우리가 즐겨먹는 횡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어장에서 잡은 고기가 우리 입맛에 맞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에 해당 어종의 전체 수입을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다는 것은 식량 안보와 수산물 수급안정의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그림 7 > 대일 주요 수산물 수입 비중(2003, 금액 기준)



주 : HS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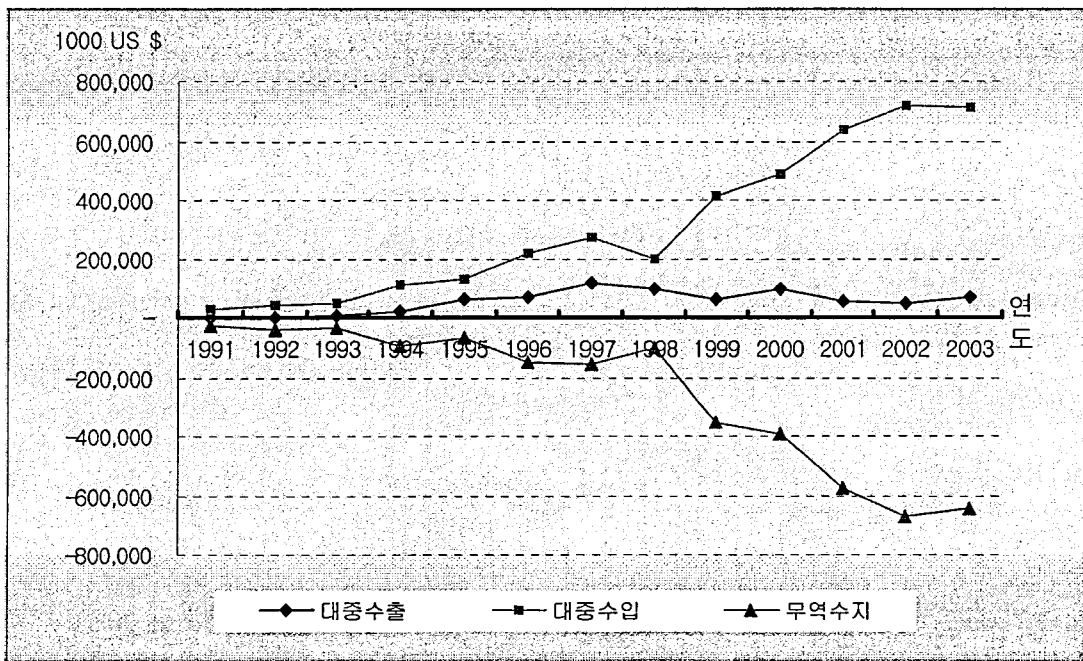
## IV. 한·중간 수산물 교역 동향

### 가. 수산물 무역수지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중간의 수산물 무역은 차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98년 이후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 교역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과 우리나라의 수입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에 따라 교역 첫해부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적자폭은 1998년 이후 급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이 1991년 495천 달러에서 1997년 1억 1,439만 3천 달러로 증가 한 이후 다소 줄어들어 2003년 7,079만 6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의 수입은 2,900만 3천 3달러에서 7억 1,353만 8천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1998년 이후 수산물 무역 규모는 약 4배정도 급증하여 그 무역 수지 적자 폭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한편 199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중국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수산물 무역의 완전 자유화와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의 성장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연근해의 수산자원 감소, 연료비와 인건비의 상승 등 국내 생산 요인의 악화는 대 중국 수입증가의 다른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그림 8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무역수지 변화



< 표 12 > 연도별 한·중 수산물 무역수지 규모

단위 : 천불

구분	대중수출(A)	대중수입(B)	무역수지(A-B)
1991	495	29,003	-28,508
1995	64,229	128,874	-64,645
2000	93,134	486,841	-393,707
2001	55,709	634,449	-578,740
2002	48,345	719,314	-670,969
2003	70,769	713,538	-642,769
연평균증감율(%)	39.2%	23.8%	

자료: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년도

## 2. 수산물 수출입시장의 구조변화

1995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규모는 연평균 23.8%씩 증가해옴으로써 2000년도 이후에는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의 약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입증가추세가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 중국 수출은 1995년 이후 전반적인 추세는 미미하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총수출에 대한 비율 역시 4-6% 전후로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다.

< 표 13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입 비중

단위 : 백만불

구분	수출			수입		
	총수출	중국수출	비율	총수입	중국수입	비율
1995	1,722	64	3.7	843	129	15.3
2000	1,504	93	6.2	1,411	487	34.7
2001	1,274	56	4.4	1,648	634	38.5
2002	1,160	48	4.1	1,884	719	38.2
2003	1,129	71	6.3	1,961	714	36.4
연평균증감율(%)	△ 4.6	1.3		9.8	23.8	

자료: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년도

1) 품목별 수출시장

우리나라의 대중 수산물 수출은 전술한 바와 같이 10%미만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비록 1998년의 상위 10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달하던 것이 2003년 75%로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소수 품목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표 14 > 대중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액 변화

단위 : 천불

품목명	1998	품목명	2003
오징어(냉동)	32,412	오징어(냉동)	14,168
명태(냉동)	16,319	기타연체동물(냉동)	8,746
기타연체동물(신선냉장)	11,765	갑오징어(냉동)	7,366
길치(냉동)	5,111	명태(냉동)	6,470
명태연육(냉동)	4,480	기타어류(냉동)	4,219
기타넙치류(냉장)	4,296	새꼬리민태(냉동)	3,395
김(마른것)	3,645	대구냉동	2,594
민대구(냉동)	2,679	명란(냉동/필렛, 어육제외)	2,358
대구(냉동)	2,257	기타넙치류(냉동)	2,038
기타	1,771	삼치(냉동)	1,962
상위10위 합계	84,736	상위10위 합계	53,315
대중총수출액	97,041	대중총수출액	70,769
상위 10대품목비중	87%	상위 10대품목비중	75%
전체 수출품목수	81	전체 수출품목수	103

자료: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년도

2) 품목별 수입시장

우리나라 수입 시장에서 중국은 36%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수산물의 종류도 1998년의 135개에서 211개로 대폭 늘어나 수출 수산물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위 10개 품목 집중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중에 64%에서 55%로 완화된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고).

< 표 15 > 대중 수입 수입액의 품목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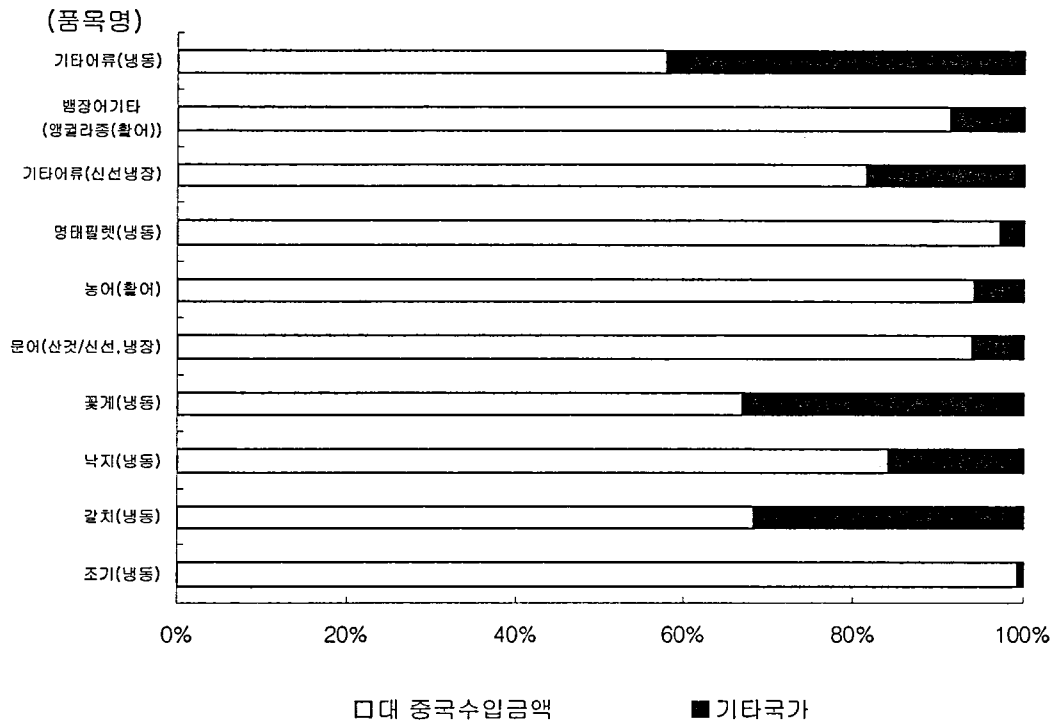
단위 : 천불

품목명	1998	품목명	2003
조기(냉동)	52,148	조기(냉동)	126,948
갈치(냉동)	22,164	갈치(냉동)	45,192
낙지(냉동)	18,487	낙지(냉동)	40,429
오징어(냉동)	6,925	꽃게(냉동)	37,596
새우와보리새우(염장,염수장)	5,361	문어(산것/신선,냉장)	32,217
기타	4,834	농어(활어)	24,091
피조개(냉동)	4,602	명태필렛(냉동)	23,444
붕장어필렛(냉동)	4,320	기타어류(신선냉장)	23,170
농어(활어)	4,299	뱀장어기타(앵귤라종(활어))	18,297
명태(복어)	3,493	기타어류(냉동)	17,553
상위10위 합계	126,633	상위10위 합계	388,936
총수입액	197,120	총수입액	713,538
상위 10대품목비중	64%	상위 10대품목비중	55%
전체 수입품목수	135	전체 수입품목수	211

자료: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년도

이처럼 대중 수산물 수입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전체 수입액 중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림 11>에서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조기(냉동)가 수입산의 99.4%를 장악하고 있는 데 이어 명태(필렛)은 97.1%, 문어(산것/신선,냉장)는 93.9%를 차지하여 사실상 수입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9 > 대중 주요 수산물 수입 비중(2003, 금액 기준)



## V. 수산물 무역환경의 변화

### 1. 국내 수산물 자급률의 저하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 생산유지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 양식어업 육성사업 등 기존의 어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중장기 수산물 생산량을 추정하였다(<표 16> 참조).

추정결과, 2011년도 수산물 총생산량은 244만 8천톤으로 현재보다 2000년 대비 3.7%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산물 종류별로 보면, 어류의 생산량은 122만 7천톤으로 2000년에 비해 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해조류 역시 동 기간 약 32.3% 감소된 26만 2천톤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패류는 동 기간에 11%가 증가하여 93만 9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국내소비는 2011년에는 현재보다 14.1%가 증가한 363만 1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자급률은 67.4%로 낮아질 전망이다.

< 표 16 > 한국의 수산물 장기생산전망

단위 : 천M/T

구 분		2000(A)	2011(B)	B/A(%)
생산	총계	2,514	2,448	96.3
	어류	1,280	1,216	95.0
	패류	846	939	111.0
	해조류	387	262	67.7
소비		3,183	3,631	114.1
자급률 (%)		79.0	67.4	

주 : 수산부문 중장기 전망은 '농어촌특별대책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AREMOS 모형에 근거하여 수산 부문 불변부가가치, 어업소득, 생산, 소비, 수출입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함.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환경변화와 우리 수산업의 진로, 신어업어촌발전전략연구, 제1권.2003. 2.

### 2. 국제 어업질서 재편과 수산물 무역

#### 가. 동북아 수역의 질서재편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 그리고 일·중어업협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과 중국도 EEZ 어업협정시대로 접어들었다. EEZ 어업관리체계가 정착되면

서 인접 국가간 어장의 배타적 이용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어업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어획량의 안정적 확보는 점차 어려운 형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록 상호입어의 어업형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연안국의 제도적 제한이 강화되어 어획량의 감축이나 생산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결국은 생산규모의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요 근해어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근해어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동시에 연안어업의 재정비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제기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인접 국가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업질서에 적합한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구조의 변화 속에서 종전의 시장공급 규모를 유지하려면 결국 어획량의 감소에 상응하는 수산물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는 곧 3국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무역의 확대로 이어져 새로운 수산물의 무역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어장의 축소와 어장의 배타적 이용이 강화됨에 따라 특수한 어종에 대한 국가별 특성화도 보다 강화되어 기존의 역내 국민의 수산물 기호에 익숙한 수산물의 무역이 보다 심화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앞의 실태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수산물이 최근 원료어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나. WTO-DDA 협상

DDA 협상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과 수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제를 포함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년여가 경과한 2003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별로 진척된 협상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WTO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러 부문에서 공통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즉, 수산부문은 수산업의 경제적 가치 이외에 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여 공산품에도 별도로 분리하여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또 관세인하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회의에서 의장초안의 관세인하공식이 각국의 민감품목을 배려할 수 있는 신축성이 없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야별 관세철폐, 즉 수산물의 무세화에 대해서도 양국은 유한천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물이 분야별관세철폐(무세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의 Fish Friends Goup의 주장과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우리의 주변국가인 중국이 WTO에 가입한 상태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협상결과는 또한번 국제 수산물 교역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다. 한일 FTA협상 체결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는 양국간 FTA 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 결과 2002년 3월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3년 10월 20일 제11차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정상은 2005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금년내 정부간 협상 개시를 합의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강력한 수입할당제도를 포함한 비관세장벽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과 상대적으로 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간에 수산부문의 협상안을 원만하게 합의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수산물의 생산, 소비 및 수출입 분야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FTA 체결은 상대국의 수산업에 예상외의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FTA 체결의 영향을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일 양국이 모두 관세장벽을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은 2.8% 증가에 그치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16.9%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물량이 큰 10대 품목의 경우 대일 수출은 3.0% 늘어나는 데 비해 일본에서의 수입은 24.5%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관세장벽과는 달리 비관세장벽의 철폐효과는 우리가 다소 클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것은 현재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상당히 높은 비관세장벽을 쌓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의 수입할당에 묶여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원의 제약 등으로 대일 수출을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패류 및 해조류, 기타 수산물(037류), 갑각류와 연체류(036류) 등의 대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이들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또 일본의 주요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 3. 일본시장 구조의 변화

#### 가. 수산물 자급률 조정정책 추진

일본은 수산물 생산량 급감으로 자국내 소비 충당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정부는 수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02년 3월 '2012 수산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산물의 생산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소비와 수입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해조류 제외)을 2012년까지 6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 표 13 > 참조).

EEZ 등 국제어장의 상실 여파로 원양어업의 생산량 감소를 용인하면서 어패류 자급률을 현재의 53%에서 2012년 66%로 끌어올리기 위해 근해어업의 생산을 2000년 259만톤에서 2012년에는 342만톤으로 연평균 2.3%의 높은 생산증대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안어업(해조류 제외)에서 2012년까지 16.4%의 증가율을 실현하여 170만톤까지 증산하고, 해면양식업에서도 2012년까지 11.4%의 증산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78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생산목표는 자국의 자급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에 불과한 것이지만, 향후 일본의 수산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 표 16 > 일본의 수산물 장기생산전망

단위 : 천M/T

구 분		연 도		
		2000	2012	증감률(%)
전체(식용)물		574(453)	682(526)	18.8
어패류 생산목표	원양어업 <sup>1)</sup>	86	79	△8.0
	근해어업 <sup>2)</sup>	259	342	32.0
	연안어업(해조류 제외) <sup>3)</sup>	146	170	16.4
	해면양식업(해조류 제외)	70	78	11.4
	내수면어업·양식업	13	13	0.0
	해조류	65	67	3.1
어패류 소비 목표(만톤)		1,086	1,037	-
어패류 자급률 목표(%)		53	66	-

주 : 1) 원양저인망어업, 원양가다랭이·참치선망어업, 원양참치연승어업, 원양오징어어업 .

2) 10톤 이상의 동력선을 사용하는 어업 중 원양, 정치망, 지인망어업을 제외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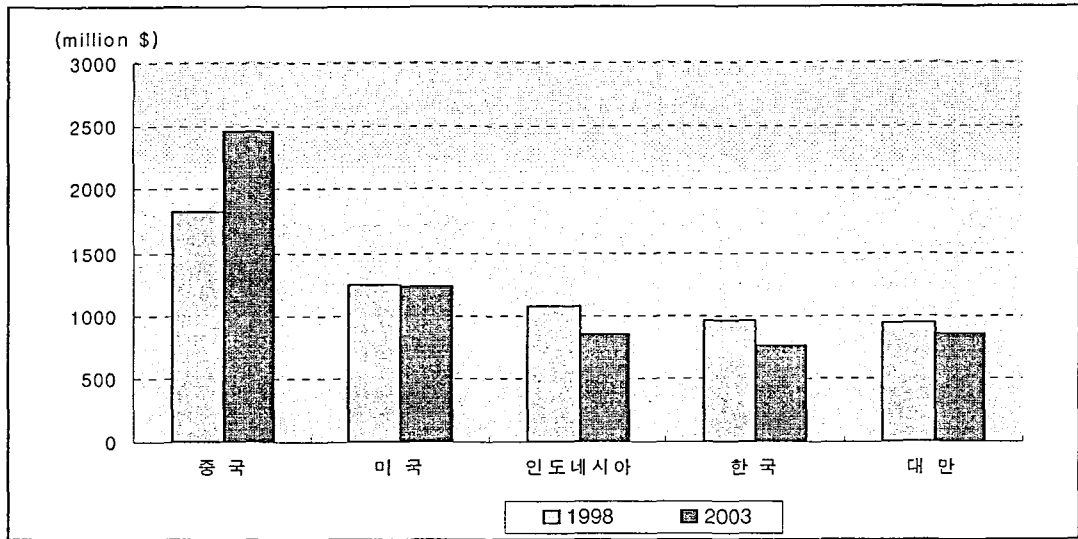
3) 어선비사용어업, 무동력선 및 10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는 어업 및 정치망어업, 지인망어업.

자료 : 日本 水産廳, 「水産基本計劃」, 2002.

## 나. 수산물 수입구조의 변화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최근 4년동안 주요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은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하위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일본의 수입 4위 국가 여으나 4년 동안에 7위로 낮아졌으며, 점유율뿐만 아니라 절대규모면에서도 7대 국가중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표 10>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입변동 추이



< 표 17 > 일본의 국가별 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국명	1998	국명	2003
합계	13,276 (100.0)	합계	13,510 (100.0)
중국	1,827 ( 13.8)	중국	2,460 ( 18.2)
미국	1,243 ( 9.4)	미국	1,236 ( 9.1)
인도네시아	1,078 ( 8.1)	러시아	1,051 ( 7.8)
한국	958 ( 7.2)	태국	965 ( 7.1)
대만	941 ( 7.1)	인도네시아	858 ( 6.4)
러시아	903 ( 6.8)	대만	855 ( 6.3)
칠레	716 ( 5.4)	한국	755 ( 5.6)
기타	5,610 ( 42.5)	기타	5,330 ( 33.1)

주 : ( )는 해당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일본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국내 자료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수산물수입협회(www.jfta.or.jp)

## VI. 새로운 무역 전개방향

### 1. 외국 소비자의 식탁을 생각하는 수출상품 개발

향후 수출전략은 국내 소비가 크고 가격이 낮은 품목은 적절한 수준에서 수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해외수요가 큰 품목은 적극적으로 수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 주도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과 동반해 대일 수출 수산물은 어업자원 수출 중심에서 수산가공품 수출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일본 소비자들의 외식화, 국제화, 레저화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즉석식품 혹은 간편식품의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수요가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미(냉동고기풀), 어육연제품, 맛살, 어단, 조미오징어, 어육피레트, 조미패류, 어육분말스프, 해조분말 등의 재료, 소재 및 제품과 이를 이용한 즉석식품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일본인의 수산물 선호체계가 생체방어기능 및 조절기능을 강조하는 건강식품 선호로 전환됨에 따라 연제품을 원료로 한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능성 식품의 경우 그 자체를 식품으로 소비하기는 어려우나 유용성분을 적당량 함유하는 일상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고차가공기술의 개발과 국내 관련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수산물을 일본 시장에서 팔기 위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식품 안전성 확보이다. 일본의 최근 수산정책은 식품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생산자 및 소비자도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시장 변화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일 수출 수산물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특히 일반 수산물 보다 생산과정이 복잡한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식품 안전을 위한 강화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 HACCP 등 수산가공품에 적합한 품질인증제도 등을 완비하고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2.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수산물 수출경쟁전략은 종래의 인건비의 비중이 큰 노동집약적 상품생산을 통한 가격비교우위의 전략에서 향후에는 자원절약적이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을 통한 품질비교우위 전략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적 향상을 통한 품질의 비교우위 확보가 중요하다.

수출 수산상품의 품질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수출상품 중 선어는 원형 및 저차가공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원료어의 처리, 포장, 수송기술을 고도화하여야 하며, 원료어의 처리는 어획후 어체의 변질이나 성분의 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어장과 양륙항과의 원격성, 수산물의 부패·변질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산물 수송기술의 고도화는 중요한 과제로서 수송과정에서의 생존율 향상과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문의 기술개발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양식수산물은 생산과정에서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우량종묘의 생산·확보와 양성관리의 전문화를 촉진하여야 하며, 제품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수산상품의 질적 개선과 아울러 수산물 소비의 편리성, 간편성 등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의 변화에 부응하고, 제품의 표준화, 제품의 등급화 등 제품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일본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점차 소량구매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상품구매에 있어서도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고 있어 소포장 및 개성 있는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강화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이 부패성, 잔류물질 허용기준(항생제, 공해물질 등)의 준수여부, 기생충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위해 미생물의 함량, 화학물질 오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식품의 위해성, 새로운 제조, 포장, 유통기법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위생검사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수산물 제품안전성 기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3. 동북아 수산물 무역연계 협력체계 구축

#### 가. 어업자원의 공동관리체계 구축

동북아지역의 역내 수산물의 생산과 무역의 연계를 통한 수산물 수급의 안정화와 생산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어업 관리체계의 구축 및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중·일 3개국의 어업자원의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무역질서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3국은 수산경제의 기본 생산체제가 이질적이고 발전 단계도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수산업의 성장발전이 이미 성숙기를 넘어 조정기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국내경제의 개방에 따라 수산물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숙단계에 있다. 일본은 이미 수산업의 구조조정이 완결된 안정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역수산경제체제나 어업관리체제를 무역과 연계시켜 보다 합리적인 광역 해양생태적 자원 및 어업생산관리를 달성하고, 동시에 무역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최근 일본에 의하여 창안된 바가 있다.<sup>1)</sup>

#### 나. 극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분업체계

극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시장에 있어 중국의 저차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수산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신장되고 있고, 일·북한간 저차상품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상품 구성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 지향적인 극동아시아권역(한국, 일본, 대만, 중국, 북한)내 수산식품의 제품차별화를 위한 수직적 분업체계를 주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다. 동북아 수산물 허브(Hub)시장 조성

수산물 Hub시장을 통한 국제거래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시장의 국제화와 WTO의 영향으로 국제수산물교역은 질과 양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국제수산물 교역의 중심으로 시장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1) APEC 자원관리분야에서 일본이 자원관리와 무역제한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참치의 경우 자원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참치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참치의 국제무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수산교역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리적 이점과 물류기반을 이용한 물류중심기지를 한·일·중 3국의 중심어항에 동북아 Hub시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Hub시장에는 관세부과 유보 상태에서 수입물품의 보관, 집배송, 가공제조, 판매 등의 종합적 물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수산물 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산물종합보세구역을 설정하여 One Stop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과 국내 어획물 등을 단순중계가 아닌 가공·포장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조성을 통하여 동북아 중심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양륙 및 반출기능과 식품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보증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수산물 종합거래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 4. 수산물 종합무역정보 체계 구축

세계적인 개방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상품교역의 최고 비교우위 요소가 정보이다. 따라서 세계수산물의 수급상황과 경쟁국의 수산물 생산, 소비, 가격 등의 시장정보 및 새로운 제품생산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산물 교역에 관한 해외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 '수산물 수출조합'으로 수출수산물 추천과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고상태, 가격 등 극히 제한적인 단기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무역협회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일부 수집·발표하고 있으나 매우 단편적인 자료의 제공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계 수산물 무역과 관련된 정보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가공 원료의 저장, 수송, 가공량, 필요인력, 가공시간, 신선도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생산자의 자율적 생산량 조절을 통한 수취가격의 제고와 수출업자의 합리적 구매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국내 수산물 생산·시장 정보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관측 및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